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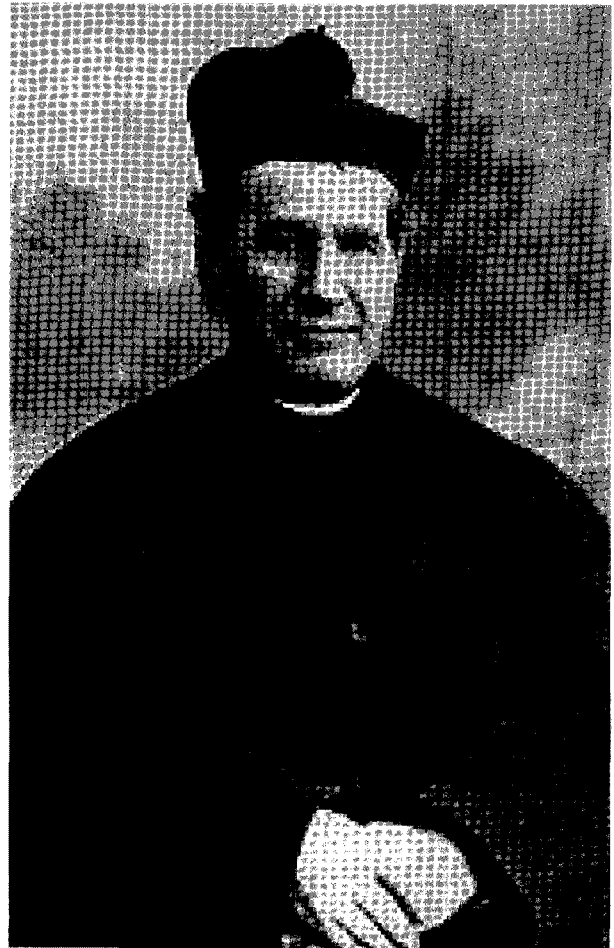
모든 견습공들의 아버지이자
인쇄사 제본사 열어
청소년 교육시킨

돈보스코 (요한 보스코)

Don Bosco, Giovanni

돈보스코는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 가톨릭 신부였다. 살레시오 수도회를 창설하고 평생을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였다. 1929년 교황 비오 11세가 복자로 시복하였고, 1934년 4월 1일에 비오 11세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되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의 생애는 이탈리아 영화 <돈 보스코>로 만들어지기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약력

- 1815 이탈리아 토리노 근처 베키에서 출생
- 1841 토리노에서 사제로 서품
- 1853 기술 상업 기숙학교 개교, 그의 첫 대중 출판물인 '가톨릭 문고' 출간
- 1861 돈보스코, 그의 첫 인쇄사 설립
- 1888 선종
- 1934 시성
- 1958 이탈리아 견습공들의 주보로 선포됨
- 1988 돈보스코 서거 100주년



돈보스코 성인(聖人) 유해
한국 순례

순례 열성 및 기념 미사여 특강
돈보스코 성인 순례 100주년 기념
한국 순례 유해 3명(사제, 보스코, 비오)

www.itra.or.kr

SALESIO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SALESIO

돈보스코의 일생

1815년 8월 16일 이탈리아 베키에서 태어난 돈보스코는 일찍이 두 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하고 힘든 유년기를 보낸다. 돈보스코는 어렸을 때부터 사제성소에 대한 열망을 갖지만,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남의 집 머슴살이나 상점의 점원 또는 직공 등을 하면서 신부가 되는데 필요한 길을 찾는다. 남들보다 늦게 공부한 탓에 그는 26세가 되던 1841년 토리노 교구의 사제로 서품된다. 사제가 된 돈보스코 신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당시 이탈리아 사회는 공업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청소년들로 인한 많은 혼란들이 있었다. 도시에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시골 출신의 젊은이들은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고, 교도소는 항상 넘쳐나고 있었다. 그래서 돈보스코 신부는 버림받은 청소년들의 의식주를 마련해주고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기술과 공부를 가르쳐주는 일을 시작한다. 그의 보살핌을 받는 소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돈보스코 신부는 1854년 살레시오 수도회를 창설한다. 살레시오회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청소년들의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는 수도회로 현재 130여개 국에서 1만60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가톨릭 수도회다.

성 요한보스코 유해 한국 순례

지난해 11월 성 요한보스코 신부의 유해가 한국에 왔다. 11월 1일 도착한 유해는 17일 간 서울 살레시오회 관구관, 광주 살레시오 중고등학교,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등 7곳을 순례했다. 이 행사는 살레시오회가 성 요한 보스코 신부 탄생 200주년을 앞두고 청소년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밀랍 모형 안에 봉인된 그의 유해를 모시고 전 세계를 순례한 것이다.

여섯 개의 작업장을 연 돈보스코

1853년 돈보스코는 구둣방과 재봉소를 열었다. 그리고 다음해인 1854년 초 세 번째로 재봉사를 열었다. 그의 소년들 중에는 아무도 이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소년들에게 둘러싸인 돈보스코는 자신이 저술한 <수호천사>라는 책의 인쇄공치를 탁자위에 꽤 놓은 다음, 한 소년을 지적하면서 말했다.

“너 제본을 해봐” “제가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쉬운 일이야. 이리 와봐. 이 큰 종이들을 전지라고 하는데, 이걸 반으로 접어서 또다시 반을 접을 다음 또 한번 반으로 접으면 된다. 알겠지? 그럼 한번 해보자.” 탁자 둘레에 있던 소년들의 도움으로 종이들이 접어졌다. 돈보스코는 접혀진 인쇄지를 번호대로 차례로 놓았다. “이제 책이 돼 가는군. 이제는 이걸 꿰매어야지” 맘마 말가리따에게 도움을 청해 굵은 바늘로 몇 군데 손가락을 찌러기는 했지만 일은 성공했다. 곁장을 붙이기 위해 풀을 만들었다. 이제는 마무리 작업만 남았다. 책 가장자리를 다듬어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탁자 둘레에 있던 소년들은 가위나 칼을 사용하자는 방법과 돌 가는 기계를 사용하자는 방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돈보스코는 부엌에 가서 양파나 미나리를 써는 식칼을 가져다가 책 가장자리를 다듬었다. 소년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돈보스코도 웃었다.

인쇄사를 열기까지의 1년

1856년말 네 번째 작업장인 목공소가 문을 열렸다. 가장 기다렸던 다섯 번째 작업장은 인쇄사였다. 돈보스코는 관할지역의 허가를 받기위해 거의 1년 동안 고군분투해야 했다. 1861년 12월 31일 협정이 성립되었다. 시작은 보잘 것 없었다. 아이들의 팔로 돌려지는 수동식 활자였지만 그 인쇄사는 돈보스코의 생존시에 4대의 인쇄기, 12대의 동력기, 연판 제련소, 조판술을 구비한, 시에서 가장 훌륭한 인쇄사가 되었고 현대적인 규모를 갖춘 인쇄사로 변화되었다. 1862년 돈보스코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작업장인 철공소를 열었다. Ⓞ



참고문헌

참고자료

돈보스코

살레시오회 한국관구 출판부

본도출판사